

로봇, 집안에 성큼... 정화·청소·세프 등 삼성봇이 척척

〈공기〉



삼성전자 부스 가보니

라이프스타일 AI 탑재 로봇 선보여 QLED8K 등 진화된 TV 대거 공개 출시 앞둔 '갤럭시' 신제품도 전시

삼성전자가 'CES 2020'에서 소비자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21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새로운 콘셉트의 로봇 공개

삼성전자는 작년 CES에서 첫선을 보인 '삼성봇' 플랫폼을 확대해 새로운 콘셉트의 로봇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그간 선보인 로봇은 노약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삼성봇케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삼성봇 에어', 집안 곳곳을 청소해 주는 '삼성봇 클린', 세프를 도와 조리를 보조해주는 '삼성봇 세프' 등이 있었다.

이번 CES에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AI를 탑재한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며, 6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김현석 사장의 기조연설에서 전격 공개한다.

◆미래세대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가전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봇 세프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봇 세프'는 로봇 팔에 다양한 도구를 바꿔 장착함으로써 식재료를 자르고 섞거나 양념을 넣는 등의 요리 보조 기능을 지원하며, 레시피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올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20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한 단계 진화한 '푸드 AI'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개인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와인, 맥주, 화장품 등을 각각 최적의 온도로 관리해주는 '큐브 냉장고'와 신발의 냄새와 습기를 관리해 주는 '신발관리기' 등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도 선보인다.

이 밖에 비스포크 냉장고도 전시해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TV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한 차원 진화한 QLED 8K, 라이프스타일 TV, 더 월을 공개하고 15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020년형 QLED 8K는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새로운 AI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베젤이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을 선보여 T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QLED 8K 신제품은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스피커를 따라 움직이는 OTS+를 적용했고, TV와 사운드바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 주는 Q-심

포니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한다. Q-심포니는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해 사운드 혁신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마트 기능도 대폭 개선한다.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TV플러스' 채널을 연내 120여개 확보할 예정이며, 삼성 빅스비 외에도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인식 플랫폼을 모두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 라이프스타일 TV 시장의 본격 확대를 위해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더 세로'를 전시하고 글로벌 출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반의 더 월 경험을 소비자들의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가정용 라인업도 대거 선보인다. 마이크로 LED는 모듈러 기반으로 뛰어난 화질은 물론 베젤, 사이즈,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5G 리더십 부각

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5G 갤럭시 스마트폰 전 라인업을 전시한다. 또한, 방문객들은 올해 출시 예정인 다양한 신제품을 볼 수 있다.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10 라이트 ▲갤럭시 A 시리즈 신규 모델 갤럭시 A71 ▲갤럭시 A51 ▲세계 최초 5G 태블릿 PC 갤럭시 탭 S65G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갤럭시

북S'와 '갤럭시 북 플렉스', '갤럭시 북 이온' 등 PC 최신 제품도 전시한다.

◆'디지털 콕핏 2020'

디지털 콕핏 2020은 삼성의 자동차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 칩셋을 탑재해 차량 내 8개의 디스플레이와 8개의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안전 운행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후방 화면을 설치해 라이트 역할뿐 아니라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5G 기반의 '차량용 통신 장비(TCU)'를 전시해 탑승자가 주행 중에도 고화질 콘텐츠와 HD맵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끊김 없이 화상 회의를 하거나 게임 스트리밍을 즐기는 시연도 진행한다.

◆AI·5G·빅데이터 특화 '메모리 솔루션'

삼성전자는 AI·5G·전장·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선보인다.

CES 2020 혁신상을 받은 SSD 3종 ▲PCIe 4.0 인터페이스 기반 M.2 규격의 '980 PRO 1TB'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된 보안 편리성이 강화된 '포터블 SSD T7 터치 1TB' ▲V낸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PCIe Gen4 NVMe SSD 30.72TB(PM1733)' 등이 대표적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일상 속에서 마이크로LED TV 만난다”

한종희 삼성 사장 미디어간담회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 강조 홈엔터테인먼트시장 본격 개척 베젤없는 QLED 8K TV도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20'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 퍼스트 룩은 삼성전자가 매년 TV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미래 디스플레이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은 이날 전 세계 500여 명의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을 강조하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스크린을 최적화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AI와 연결성이 가져올 스크린의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사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선보인 지 10여 년이 됐고, 이제 스마트 TV는 전 세계 TV 판매의 80%를 차지할 만큼 널리 확산됐다"며 "앞으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삼성 인텔리전트 스크린을 '퀵탐 AI'라고 규정하고 스크린 혁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퀵탐 AI는 삼성 TV의 두뇌 역할을 하는 '퀵탐 프로세서'가 TV에 최적화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이 삼성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된 스마트 플랫폼 '타이젠'과 결합해 AI 기반으로 화질, 사운드는 물론 사용성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의 모든 경험을 최적화 해준다는 의미다.

◆'더 월'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0에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88형과 150형 더 월 신제품을 공개했다.

더 월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모듈러 기반 스크린으로 뛰어난 화질은 물론 베젤, 사이즈,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75형·88형·93형·110형 등 홈 엔터테

인먼트 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선보여 일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월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편, 150형과 292형은 메인 전시관에 전시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더 월 외에도 마이크로 LED 스크린이 가진 특성을 살려 ▲스피커를 일체화시킨 '큐브' ▲선반 위에 분할된 스크린을 얹어 다양한 IoT 기능을 선보이는 '셀프'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땐 거울로 전환되는 '미리'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콘셉트 제품도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베젤이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한 2020년형 QLED 8K TV도 공개했다.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에까지 새로운 AI 기술을 대거 적용한 게 특징이다.

◆'더 세로' 글로벌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올해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을 추가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10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스크린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 가능한 '더 프레임'은 32형과 75형을 추가하고, 지난해 국내에만 선보였던 모바일 콘텐츠에 최적화된 '더 세로'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더 세로는 기존의 가로형 스크린과 달리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43형의 QLED 디스플레이를 가로와 세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車업계 '미래 모빌리티 비전' 속속 공개

>> 1면 '지상 최대쇼'서 계속

현대차 '플라잉카' 활용 사업 소개

자동차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수단의 하나로 지난해 'CES 2019'에서 '걸어 다니는 자동차'인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에 집중한다. 플라잉카를 활용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도 대거 전시했다.

GM·포드·메르세데스-벤츠·BMW·도요타 등 글로벌 10대 완성차 브랜드와 자동차 부품회사,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회사 등 140곳이 모여 자율주행 콘셉트카, 커넥티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를 대거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에 럭셔리 S클래스의 전기차 세단형 콘셉트카인 '비전 EQS'를 공개했으며, BMW는 새로운 이동성의 경험을 제공하는 콘셉트카 'i3 어반 스위트' 모델을 선보였다. 도요타는 모빌리티 에코 시스템에 대한 상세 사양뿐 아니라 전기차 기반 1인 자율주행차인 'e-4me'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혼다는 차량용 AI 비서 'OK 혼다'와 증강운전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심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 'M.Vision S'를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M.Vision S.

선보였다.

이 외에 국내 정유·유통업계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석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CES에 참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CES에서 움직이는 모험자동차와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조합해 미래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했다. SK종합화학은 친환경·초경량 자동차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소재를 전시했다.

두산중공업도 올해 처음 CES에 참가했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도 계열사 사장 등과 함께 현장을 함께 찾아가 그룹 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벳,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각각 무인 자동화 건설 솔루션인 '콘셉트 엑스'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을 공개했다.

국내 유통업체 아모레퍼시픽도 CES에 합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CES 3D프린팅 분야 혁신상을 받은 '3D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과 내년 5월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플렉서블 발광다이오드(LED) 패치' (가칭)를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